소감

정교하게 잘 만든 물건을 뜯어보는 느낌이라 많이 조심스러웠고 처음 열어봤을 때 코드에 압도되는 느낌 이였음. 진영이의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극히 일부분의 필요한부분이 보였고 몇 가지 간단한 로직을 클론코딩 해보면서 파일들의 위치와 맵핑 되는 흐름이 머리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음. 기존의 코드를 보며 만들었기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개인 코드를 정리하면서 기본적인 흐름을 익힐 수 있었음.

앞서 했던 jquery와 위젯 과제를 하며 고민한 부분들이 있었기에 다른 기존의 위젯을 참고하여 필요한 위젯을 만들 수 있었고 의도한 바를 이해할 수 있었다. 팀원들에게 위젯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똑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깨달음. 하지만 소스를 합칠 때 이름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이름이 겹쳐서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SVN은 이전 버전을 받는 것, 싱크 맞추기, 오버라이드 등을 하나씩 눌러보고 내 데이터도 날려보고 하면서 간신히 3명의 소스를 합치는 작업을 했는데 코드 정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 더 알게 된 것 같다.

성향, 특징

습득이 빠른 편은 아니라고 느껴짐. 전반적으로 데이터의 이동을 정말 하나하나 찍어보며 진행함. 그래도 지속적으로 보면서 조금씩 이해되는 부분과 ‘아!’ 하면서 이해되는 순간이 즐겁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UI 쪽으로 좀더 관심이 감. 때문에 등록 수정 팝업창부터 해결 하려함. 기능구현이 끝나고 코드를 정리하면서 구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늦게 정리했다.

강점

모르는 것을 이해하려고 집요하게 질문하는 부분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강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약점

쿼리문 작성 –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쿼리문은 작성하지만 조금 복잡해지면 이해가 안되서 진영이에게 많이 의존 한 부분이 있음, 쿼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설명을 들으며 진행을 함.

개선사항

어렵고 하기싫은 부분일수록 천천히 직접 찍어보고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 하다. 디비버를 통해 쿼리문 작성, 등을 많이 해봐야할 것 같음.

방대한 양의 코드가 있으면 어디부터 봐야할지 감을 못잡아서 물어보면서 했다. 핵심부위가 어디인지 경험을 통해 스스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부서관련

개발부서에 가면 직접적인 프로젝트 참여와 다양한 환경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따라갈 이해력과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유지보수부서는 업무적인 이해와 고객사의 개발자들과 소통하는 법, 오류 등을 빠르게 분석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두 부서 하는 일이 달라서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개발부서를 가면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적응하고 나면 전체적인 흐름과 기술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유지보수를 가면 오류와 요구사항을 처리하면서 관련된 패키지 구성을 쪼개서 찾아볼수 있는 시시간 생길 것 같다. 동시에 업무를 하면서

하지만 결국 개발자로서 살기위해 장기적으로 두 부분 다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어느 부서에 가던 순서의 차이라고 생각함. 상관없이 열심히 배울것이다.